

글쓰기 가이드북 3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윤리





글쓰기 가이드북 3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윤리**

Contents



글쓰기 가이드북 3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윤리

| | |
|-----------------------------------|----|
| 1. 글쓰기 윤리, 의식해서 지켜요! | 3 |
| 2. 부정행위 유형: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 6 |
| 3. 글쓰기 윤리를 지키는 전략 | |
| 1) 도서 | 12 |
| 2) 논문 | 16 |
| 3) 기사 | 19 |
| 연습문제 | 22 |

1. 글쓰기 윤리, 의식해서 지켜요!

최근 한 유명 트로트 가수가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가수는 결국 논문 표절 논란은 연구진실위원회의 조사로 확대되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학위를 반납하고 방송에서 하차하였다. 이외에도 한 유명강사 역시 석사 논문 표절로 진행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약 10여 년이 지난 논문이 지금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글쓰기 윤리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데 있어 글쓰기 윤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특히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블로그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각종 커뮤니티가 발달한 지금, 다양한 곳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문화의 확장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쉽게 가지고 오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또 쉽게 자신의 글을 지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개인의 자정력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전에는 글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속성 때문에 그 무게를 생각했다. 요즘은 다르다. 지운 흔적까지 지울 수 있는 데에서 글쓰기를 해서인지 그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쓰고 보자, 들켜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이기도 하다. 이는 글쓰기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글쓰기 윤리의 문제는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글을 쓰는 데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이는 비단 유명인들만의 숙제가 아니다. 글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나 과제, 논문과 같이 글을 자주 쓰게 되는 대학생들에게 더욱 지켜져야 할 윤리이다.

그렇다면 글쓰기 윤리란 무엇이며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먼저 글쓰기 윤리란 글을 쓰는 데 있어 자신의 글과 타인의 글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윤리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표절된 글이나 변조된 글, 날조된 글은 모두 글쓰기 윤리에 위반한 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트로트 가수의 경우 남의 연구가 마치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글을 썼기 때문에 표절 논란에 휩싸였으며, 스타 강사의 경우는 선행 연구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몰래 인용을 했기 때문에 표절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2005년 한 교수가 발표한 11개의 세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날조된 것이었으며, 또한 실험에 실제로 사용한 세포의 수를 변조하여 큰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것인 듯 글을 써서는 안 된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문장 등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쓴 변조된 글이나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만들어낸 글 또한 글쓰기 윤리에 위반한 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경우 인용에 의해 글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나 논문 등 일반적인 대학 글쓰기의 경우, 인용을 했을 때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밝히더라도 출처의 양식이 정확하지 않다면 글쓰기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양식에 맞추어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장을 통해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는 방법 등 글쓰기 윤리를 지키는 전략을 익혀보도록 하자.



tip!

계명대학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내용

본인은 계명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학위논문 작성에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학위논문 부정행위가 밝혀질 때에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내규」에 따라 학위 취소 처분 등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 부정행위 유형: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글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글쓰기 윤리 유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먼저 숙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글쓰기 윤리 유형에는 크게 표절, 변조, 날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표절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는 도용과 짜깁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¹⁾

표절

- ▶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
- ▶ 다른 사람의 연구방법론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사용
- ▶ 구성이나 문장을 변경하여 제출
- ▶ 서론이나 결론을 변경하여 제출
- ▶ 문장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모방
- ▶ 단행본의 일부를 베껴서 제출
- ▶ 출처 표기 없이 정보나 자료를 사용(표, 그림, 슬라이드, 컴퓨터 프로그램 등)
- ▶ 두 개 이상의 글을 하나의 글로 합쳐서 제출
- ▶ 인용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인용

도용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짜깁기는 이러한 다른 사람의 글을 수집하고 편집하여 자신의 글처럼 쓰는 것을 말한다. 도용과 짜깁기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의 글의 전개방식과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도용이라 할 수 있다.

1) 정병기, 2008, 『사회과학 논문작성법』, 서울대학교출판부, pp.97-108, 재구성.

도용과 짜깁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용한 부분의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밝혀 인용을 하더라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인용 부분에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출처를 밝히는 등이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다. 이를 잘못 표기하거나 누락하여 인용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표절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변조

- ▶ 경험 자료를 변조하여 글을 작성
- ▶ 문헌 자료 혹은 대상 작품을 변조하여 글을 작성

연구와 글쓰기에 있어 변조란 실험, 설문, 통계 등의 과정이나 결과 일부를 유리하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본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에도 글쓰기 윤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자료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인용하여 글을 쓰는 것 또한 변조에 해당한다. 변조는 글을 통해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로 글쓰기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날조

- ▶ 경험 자료를 위조하여 글을 작성
- ▶ 문헌 자료 혹은 대상 작품을 위조하여 글을 작성

날조는 변조와 달리 실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한 것처럼 속여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즉 변조는 실제로 실험 등을 수행하여 그 과정이나 결과를 속이는 것이라 한다면, 날조는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며 글을 쓰는 것이다. 설문의 경우 혼자나 몇 사람이 여러 번 설문을 작성하여 나온 것 또한 하나의 날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변조와 마찬가지로 허위 자료에 해당함으로 글쓰기 윤리와 연구 윤리 등 모두 위배되는 행위이다.

표절과 변조, 날조 외에도 다양한 글쓰기 윤리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조별과제를 하는 경우 무임승차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글쓰기 윤리에 위배된다. 무임승차는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자신의 글로 게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과제를 통해 글을 쓰게 되는 대학생들 또한 글쓰기 윤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글쓰기 윤리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 글쓰기 윤리를 지킬 수 있는지 모른다. 혹은 다른 문헌을 인용할 때 참고문헌을 써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참고문헌을 명시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한다.

참고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글쓰기 윤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라 그 출처를 밝히어 적는 방법을 명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글쓰기 윤리에 맞도록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자.

글쓰기 부정행위의 유형

- 1) 전문도용(全文盜用)과 무임승차
 - ①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
 - ② 단행본의 일부를 베껴서 제출
 - ③ 공동 과제물에 무임승차
- 2) 자기 복제와 중복 제출
 - ① 전문(全文) 중복 제출
 - ② 구성이나 문장을 변경하여 제출
 - ③ 서론이나 결론을 변경하여 제출
 - ④ 두 개 이상의 글을 하나의 글로 합쳐서 제출
 - ⑤ 자료와 내용의 보완 없이 일부를 다시 제출
- 3) 자료 위조
 - ① 경험 자료를 위조하여 글을 작성
 - ② 문헌 자료 혹은 대상 작품을 위조하여 글을 작성
- 4) 자료 변조
 - ① 경험 자료를 변조하여 글을 작성
 - ② 문헌 자료 혹은 대상 작품을 변조하여 글을 작성
- 5) 표절과 짜깁기
 - ① 출전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방법론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사용
 - ② 다른 단어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문장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모방
 - ③ 출전 표기 없이 정보나 자료를 사용(표, 그림, 슬라이드, 컴퓨터 프로그램도 포함)
 - ④ 진위를 두고 논란이 되거나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적·사회적·자연적 사실을 출전 표기 없이 인용
 - ⑤ 출전 표기를 했더라도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인용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정병기, 『사회과학 논문작성법』,
서울대학교출판부, pp.97-108.

3. 글쓰기 윤리를 지키는 전략

윤리에 맞게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표절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절은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을 일부 몰래 따다 쓰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가 제안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논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단어가 6단어 이상 연속적으로 배치되었을 때 표절로 간주할 수 있었으며, 최근 대학에서는 논문 표절 심사 프로그램에서 유사도 비율이 20% 미만의 논문만을 인정하고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몰래 사용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때에 따라서는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비록 우리 대학생들은 보고서나 논문 등의 글에서 그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을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법적 처벌이 없다 하더라도 위 연예인들의 논문 표절 사례들과 같이 대중의 질타와 외면을 받을 만한 행위임에는 이견이 없다.

대학생이 표절을 하지 않으며 글을 쓰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출처를 밝히는 방법이다. ‘출처를 밝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을 인용할 때, 누구의 글, 어느 부분에서 참고를 하였는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쓰는 보고서나 논문 등의 글에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에 맞추어 글을 쓰기 위해 출처를 밝히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출처를 밝히는 방법으로는 내주, 각주, 참고문헌이 있다.

내주를 통한 출처 표기는 인용된 본문 내에서 문헌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할 때 소괄호를 사용하며, 저자명, 연도, 인용 페이지 등의 간략한 정보만을 명시한다.

각주는 인용된 본문 뒤에 위첨자로 각주 기호나 숫자를 표시하고, 페이지 아래에 해당하는 출처를 밝히는 방법이다. 각주는 내주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보통 저자명과 연도, 제목(도서명), 출판사, 학술지명, 인용 페이지 등을 명시한다.

참고문헌은 글을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문헌 전체를 작성하는 것으로, 글의 마지막에 참고문헌 목록이 제시된다. 참고문헌에는 저자명과 연도, 제목(도서명), 출판사, 학술지명 등을 명시하며, 내주나 각주에 제시된 문헌들도 모두 포함한다.

지금부터 글쓰기 윤리를 지키는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문헌에 따라 그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도서(단행본)나 논문, 기사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 도서(단행본)

도서의 제목은 겹낫표(『』)를 통해 기술하며 출처는 ‘저자명, 출판연도, 『도서명』, 출판사.’ 와 같이 명시한다. 각주를 통해 출처를 밝힐 경우 인용된 문장이 있는 쪽수도 함께 명시한다.

도서의 출처 표기 방식

홍길동, 2021, 『홍길동의 생애』, 길동출판.



tip!

p와 pp는 무엇일까?

인용의 출처 표기나 참고문헌을 보면 ‘p’와 ‘pp’를 쉽게 찾을 수 있다. p는 ‘한 페이지’를 뜻하며, pp는 ‘처음페이지-마지막페이지’를 의미한다. 다음의 예를 보고 ‘p’와 ‘pp’의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자.

홍길동, 2021, 『홍길동의 생애』, 길동출판, p.3.

홍길동, 2021, 『홍길동의 생애』, 길동출판, pp.3-5.



잘못된 도서의 출처 표기 표기 방식

‘그림책을 읽자, 아이들을 읽자’(우리교육, 2006, 최은희)
에서 담임 선생님은 매일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장부호, 작성해야 할 정보 및 순서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도서명은 겹낫표(『』)를 사용하며, 본문 내에서 출처를 밝힐 경우 참고한 페이지를 함께 명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주의 경우 출판사명을 명시하는 것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저자와 출판연도가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잘못된 도서의 출처 표기 방식(수정)

『그림책을 읽자, 아이들을 읽자』(최은희2006, p.45)에서
담임 선생님은 매일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도서에서는 구절이나 글의 일부 등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직접 인용하는 글이 짧을 때는 큰따옴표(“”)를 이용하며, 인용하는 글이 3줄 이상이 될 때는 본문에서 위아래로 한 줄의 여백을 둔 새로운 문단으로 작성한다. 다음의 예시로 자세히 살펴보자.

직접 인용의 길이가 짧은 경우

이후 “장천은 점점 더 가난해져 아침저녁으로 끼니를 잊지 못했다(김동욱2020, p.13).”고 하여 놀부와 흥부의 어린 시절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예시는 분량이 짧은 직접 인용을 잘 사용한 예이다. 인용하고자 하는 문장의 분량이 짧은 경우 큰따옴표(“”)를 이용하여 직접 인용한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내주로 표기하였으며 이는 각주로 해도 무방하다.

직접 인용의 길이가 짧은 경우 잘못된 예

인물의 대사가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움이 되었고 특히 꾸미지 않는 표현력이 마음에 들었다. 가령 ‘커다란 숫자를 보는 순간, 거북이알은 심장계의 무언가가 발밑의 어딘가로 곤두박질쳐지는 것만 같은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사건을 둘러싼 인물의 복잡한 감정을 이 한 대사로 고스란히 전달받았다.

위의 예시는 분량이 짧은 직접 인용의 잘못된 예시이다. 분량이 짧은 문장의 직접 인용임에도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으며 출처 또한 밝히지 않고 있다. 작은따옴표는 큰따옴표(“)로 수정해야 하며 각주나 내주를 통해 인용하는 구절의 출처를 밝히어야 한다.

직접 인용의 길이가 짧은 경우 잘못된 예(수정)

인물의 대사가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움이 되었고 특히 꾸미지 않는 표현력이 마음에 들었다. 가령 “커다란 숫자를 보는 순간, 거북이알은 심장계의 무언가가 발밑의 어딘가로 곤두박질쳐지는 것만 같은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장류진2019, p.50).” 그 사건을 둘러싼 인물의 복잡한 감정을 이 한 대사로 고스란히 전달받았다.

분량이 긴 구절을 직접 인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아래에 여백을 주고 본문 내에 작성한다. 긴 구절을 직접 인용한 아래 예시의 출처 표기는 본문 아래 바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게재하는 곳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면 된다.

직접 인용의 길이가 긴 경우

평양 서촌의 데릴사위 형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평양 서촌에 한 가난한 백성이 있으니 이름은 장천이라. 일찍이 두 아들을 낳으니 맏이는 놀보요 둘째는 홍보였다. 이들은 얼굴 생김새가 비상해 보통 아이들과 달랐는데, 자라날수록 놀보는 매사에 동생 홍보만 같지 못했다.

김동옥 옮김(2020), 『홍보만보록:최초의 흥부전』, p.13

직접 인용의 길이가 긴 경우 잘못된 예를 통해 비교해 보자.



직접 인용의 길이가 긴 경우 잘못된 예

‘완연한 봄,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봄을 느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초봄이었는데, 목덜미에는 따뜻한 햇볕이 느껴지면서 등에 살짝 땀이 배기 시작했다. 목에 사원증을 건 회사원들이 얇은 트렌치코트를 저마다 팔뚝에 걸친 채로,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걸어다니고 있었다.’ 간단한 서술인데도 불구하고 거북이알의 속내를 듣고 바라보는 밖 간 풍경이 온 길이 느껴졌다.

위의 예시에서는 직접 인용하는 구절이 길지만, 작은따옴표와 함께 본문 내에 인용을 했다. 출처 또한 분명하지 않은 점도 찾을 수 있다.



직접 인용의 길이가 긴 경우 잘못된 예(수정)

완연한 봄,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봄을 느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초봄이었는데, 목덜미에는 따뜻한 햇볕이 느껴지면서 등에 살짝 땀이 배기 시작했다. 목에 사원증을 건 회사원들이 얇은 트렌치코트를 저마다 팔뚝에 걸친 채로,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장류진, 2019, 『일의 기쁨과 슬픔』, 창비, p.52

간단한 서술인데도 불구하고 거북이알의 속내를 듣고 바라보는 밖 간 풍경이 온 길이 느껴졌다.

2) 논문

논문은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에 따라 출처를 밝히는 방법이 달라진다. 학술지 논문은 ‘저자,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처, 논문 수록 쪽수.’와 같이 작성한다.

학술지 논문의 출처 표기 방식

홍길동, 2021, 「홍길동의 생애 - 율도국 건국을 중심으로」,
『홍길동연구』 11, 홍길동연구회, pp.67-82.

학위 논문은 ‘저자, 발행년도, 「논문제목」, 학위논문사항.’과 같이 명시한다.

학위 논문의 출처 표기 방식

홍길동, 2021, 「홍길동의 생애 - 홍길동의 활동 지역중심으로」,
길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의 방법을 따라 다음의 오류를 수정해 보자.



잘못된 논문의 출처 표기

참고문헌

〈박지선, 2014.03.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법〉

위의 예시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논문이다. 먼저 논문을 괄호(<>)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발행연월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논문을 나타내는 낫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발행처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잘못된 논문의 출처 표기(수정)

참고문헌

박지선, 2014,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고찰 - 범행 특성 및 범죄 전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법정』 5, 한국심리학회.

도서와는 달리 논문은 간접 인용이 많이 사용된다. 간접 인용은 글을 쓰는 사람이 참고한 논문의 논지를 요약하여 전달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간접 인용의 경우 참고 문헌의 논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논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접 인용의 예

김기혁(2009)에서 장형 사동의 피사동주 격 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피사동주에 주격 표지가 나타날 경우 복문 구조(엄마가 [철수가 밥을 먹게] 했다.)를 보이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여격 표지가 수반된 경우를 단문의 구조(엄마가 철수에게 밥을 [먹게 했다.])로 판단한다. 한편 대격 표지는 복문과 단문의 이중적 구조(엄마가 [철수를 밥을 먹게] 했다.)로 인지하고 모두를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주장한다.

위의 예시는 글을 쓰는 사람이 다른 논문을 요약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간접 인용의 경우 ‘~에 따르면, ~에서는’ 등과 같이 출처를 함께 명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문헌의 정보는 글의 마지막에 참고문헌 항목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잘못된 예시를 통해 논문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과 간접 인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잘못된 간접 인용의 예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전략의 통합적인 요소”로 기업이 시장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인 동시에 ‘과정’이라는 것이다(2006, p. 8).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다룸으로써 사회에서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기업 운영의 ‘목표’라고 정의하고 있다(2006, p. 8).

간접 인용의 경우 한 문장, 한 문장 출처를 표기하는 것보다는 모든 내용을 정리한 후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옳다.

잘못된 간접 인용의 예(수정)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전략의 통합적인 요소’로 기업이 시장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인 동시에 ‘과정’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다룸으로써 사회에서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기업 운영의 ‘목표’라고 정의하고 있다(William and Chandler, 2006, p. 8).

3) 기사

기사는 신문기사와 인터넷 기사로 구분된다. 신문기사는 ‘기자명, 「기사제목」, 「신문사」, 발행연월일, 게재면.’을 명시한다.

기사의 출처 표기 방식

홍길동, 「홍길동의 울도국 찾았다?」, 『길동일보』, 2021년 1월 1일, 4면.

인터넷 기사는 ‘기자명, 「기사제목」, 「신문사」, 작성연월일, 링크주소(접속일자).’와 같이 웹사이트 주소와 접속일자를 함께 명시한다.

인터넷 기사의 출처 표기 방식

홍길동, 「홍길동의 울도국 찾았다?」, 『길동일보』, 2021년 1월 1일,
[https://www.gildong/website/link/address/\(2021년 1월 10일\)](https://www.gildong/website/link/address/(2021년 1월 10일)).

기사는 시의성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과제나 보고서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와 논문의 출처를 밝히는 것에 비해, 기사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듯하다. 기사 역시 하나의 글이며, 한 기자의 지적 재산에 해당함으로 해당 기사의 출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출처 표기 방식을 통해 인터넷 기사 출처 표기 방식을 익혀보자.



잘못된 인터넷 기사의 출처 표기

참고문헌

CJ대한통운, 대구·경북 지역 택배 이용료 전액 면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7/202002270125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위의 예시에서는 기사 제목과 기사의 링크주소만 제시되어 있다. 즉 기자명과 신문사, 작성일, 접속일자 등이 빠져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수정이 가능하다.



잘못된 인터넷 기사의 출처 표기(수정)

참고문헌

안소영, 「CJ대한통운, 대구·경북 지역 택배 이용료 전액면제」, 『조선일보』, 2020년 2월 27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7/202002270125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1년 1월 1일\)](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7/202002270125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1년 1월 1일)).

이밖에 최근에는 카페나 블로그 혹은 인터넷 백과사전과 같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글 전체의 신뢰성 문제와 귀결된다. 즉 내가 쓰는 글에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웹사이트의 정보보다는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나 문헌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웹사이트의 출처 표기 방법



tip!

웹사이트의 출처 표기 방법은 ‘웹페이지명(게시글 이름), 사이트명(블로그 명), 게시연월일, URL(접속연월일)’이다.

홍길동은 누구인가?, 홍길동전문블로거, 2020년 12월 1일, [https://never.com/blog/gildong-blogger/who_is_gildong\(2021년 1월 17일\)](https://never.com/blog/gildong-blogger/who_is_gildong(2021년 1월 17일)).

참고문헌 순서

각주나 내주 등은 본문의 순서에 따라 인용하거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를 밝히면 된다. 그러나 참고문헌은 작성하는 순서가 있으니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tip!

도서(단행본) - 논문 - 기사 - 웹페이지

일반적으로 참고문헌은 도서(단행본) - 논문 - 기사 - 웹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각 문헌의 종류 내에서는 자모순으로 작성한다.

때에 따라서 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모순으로 할 때도 있으니 게재하고자 하는 양식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나 과제의 경우에는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찾아보고,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연습문제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윤리적으로 쓴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먼저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한다.

연습문제 1

문제 1은 자료의 출처에 대한 문제이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찾아보자.

콜롬비아 남쪽과 북쪽에 거주하는 원주민 아동의 60%가 만성영양실조를 겪으며 특히 5세 이하 아동의 빈혈발생률로 추정한 미량영양소 결핍증은 콜롬비아 전체에서 약 2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습문제

연습문제 2

출처의 표기 방식 및 인용과 관련한 문제이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찾아보자.

혹시 ‘20대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니?’란 책을 아는가? 그 책에1)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꿈꾸는 것이 무섭지 않을 것이다.’란 글귀가 있다. 이 글귀처럼 나는 내 인생에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기로 했다.

각주 1) 심현아, 『20대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니?』,
지식공감, 2016,



:) 연습문제

연습문제 3

참고문헌의 오류가 나타난 문제이다. 틀린 부분을 찾아 알맞게 수정해 보자.

[참고문헌]

〈국민일보, 2020.05.28. 조현병은 위험? 불치병? 당신이 모르는 진짜 정신병이야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0068&code=11131100&cp=nv>〉

〈[네이버 지식백과] 조현병 [schizophrenia]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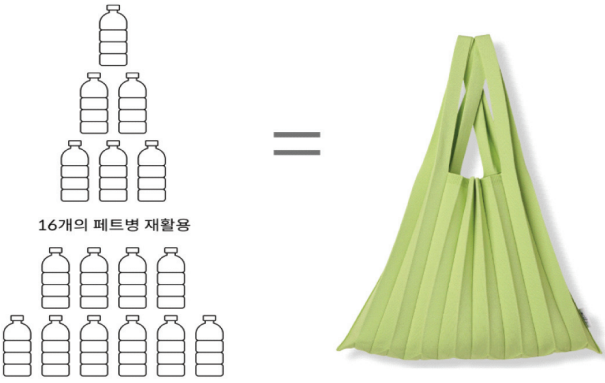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9928&cid=51004&categoryId=51004>〉



:) 연습문제

연습문제 4

이미지 자료와 관련한 문제이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찾아보자.



16개의 페트병 재활용

분해되는 데에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플라스틱. 애초에 우리가 플라스틱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플리츠마마는 이미 사용 된 플라스틱 제품들을 다시 적절히 재활용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고 한다. 플리츠마마는 페트병 재활용 원사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및 쓰레기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석유자원을 아끼는 데에 동참한다.



:) 연습문제 답안

연습문제 1

(~에 따르면) 콜롬비아 남쪽과 북쪽에 거주하는 원주민 아동의 60%가 만성영양실조를 겪으며 특히 5세 이하 아동의 빈혈발생률로 추정된 미량영양소 결핍증은 콜롬비아 전체에서 약 2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습 문제 1은 ‘원주민 아동의 60%가 만성영양실조를 겪는다.’와 ‘5세 이하 아동의 빈혈발생률로 추정된 미량영양소 결핍증은 콜롬비아 전체에서 약 27.5%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글은 글쓰기 윤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글의 신뢰성 또한 저하될 수 있으니 ‘~에 따르면’과 같이 출처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습문제 2

혹시 『20대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니?』란 책을 아는가? 그 책에1)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꿈꾸는 것이 무섭지 않을 것이다.”(출처)란 글귀가 있다. 이 글귀처럼 나는 내 인생에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기로 했다.

각주 1) 심현아, 『20대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니?』, 지식공감, 2016.

👉 연습 문제 2의 ‘20대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니?’는 도서의 표기로 적절하지 않다. 도서는 겹낫표(『』)를 사용하여 『20대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니?』로 작성한다. 또한 직접인용의 경우 큰따옴표(“”)의 방식을 사용하며, 출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연습문제 3

[참고문헌]

전웅빈 외, 「조현병은 위험? 불치병? 당신이 모르는 진짜 정신병 이야기」, 『국민일보』, 2020년 05월 28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0068&code=11131100&cp=nv>)(검색일자)

<[네이버 지식백과] 조현병 [schizophrenia]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9928&cid=51004&categoryId=51004> > =>삭제(수정)

👉 인터넷 기사의 경우 ‘기자명, 「기사제목」, 『신문사』, 작성연월일, 링크주소(접속일자).’에 따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기사의 경우 수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접속일자(검색한 날짜)를 함께 명시한다. 또한 아래의 인터넷 글의 경우 ‘네이버 지식백과’의 출처가 ‘국민건강정보포털’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정보포털’로 들어가 이에 대한 출처를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연습문제 4

👉 연습문제 4의 경우 이미지에 대한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미지도 하나의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MEMO

MEMO

교수학습개발센터

표현력클리닉 프로그램

표현력클리닉에서는 학생들의 한국어 및 영어 글쓰기·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합니다.

일대일 글쓰기 첨삭지도

국어와 영어의 일대일 맞춤형 글쓰기 첨삭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일대일 한국어 글쓰기 컨설팅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및 문제를 전문가와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는 프로그램

일대일 한국어 스피치 컨설팅

전문가와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별 스피치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일대일 영어 컨설팅

개별 컨설팅을 통해 본인의 실력 점검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토익 시험 준비부터 영어 발표까지 다양한 영어 학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컨설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일대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일취월장 글쓰기 특강

글쓰기에 관한 관심 고양 및 완성도 높은 글쓰기를 장려하고자 교내·외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청산유수 말하기 특강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및 전문성을 부각하고자 교내·외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영어 글쓰기/회화 워크숍

외국어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면으로 운영하는 워크숍

영어 온라인 특강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상시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영어 학습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표현력 길잡이 교육

대학 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 및 영어 글쓰기·말하기 방법을 상시로 수강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공하는 온라인 특강

표현력 무한도전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계발하고 우수 사례를 대외로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계열별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계열별로 보고서 쓰기 유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보고서 쓰기의 향상을 길러주기 위해 팀별 워크숍과 개별 컨설팅 두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학과별 의사소통 동아리 교육

학과별 의사소통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표현력 챌린지 공모전

기초 학습역량과 창의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해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한국어 글쓰기·말하기, 영어 글쓰기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표현력 책자 제공

효과적인 한국어 및 영어 글쓰기·말하기 방법에 대한 노하우 제공

글쓰기 가이드북 3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윤리

| | |
|-----|--------------------------------|
| 발행일 | 2024년 1월 |
| 발행인 | 계명대학교 총장 신일희 |
| 기획 | 사용진(교수학습개발센터장) |
| 검수 | 임태성(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
| 집필진 | 박찬미, 고도연, 김철균(표현력 클리닉 튜터) |
| 편집 | 이민지(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
| 발행처 | 계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바우어 신관 3층 |
| 문의 | kctl@kmu.ac.kr / 053) 580-8884 |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저작권은 계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있습니다.

[비 매 품]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글쓰기 가이드북 3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윤리



계명대학교 | **교수학습개발센터**
KEIMYUNG UNIVERSITY |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바우어 신관 3층
TEL (053) 580-6492~3 FAX (053) 715-2022 E-mail kctl@kmu.ac.kr